

신체만족도와 신체인지도에 따른 의복맞음성(Apparel Fit) 만족도

이 경 립* · 박 속 현⁺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석사과정* ·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Apparel Fit by Body Perception and Body Satisfaction

Kyung-Lim Lee* · Sook-Hyun Park⁺

Master Course, Dept. of Fashion Design & Merchandising, Kyungsoo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 Merchandising, Kyungsoong University⁺

(2003. 10. 6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apparel fit satisfaction according to item(jacket, pants, skirt) by body perception and body satisfaction. This research was done by a survey method.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rosstab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Correlation between body perception and body satisfaction: The subjects were less satisfied with larger or thicker girth of upper body. The subjects were less satisfied with thicker upper arm, lower arm, waist and lower abdomen. The subjects were more satisfied with taller height. The subjects were less satisfied with larger or thicker girth of lower body. The subjects were less satisfied with thicker hips, thighs, calves, ankles, and longer crotch length. However, they were more satisfied with longer legs. 2) Apparel fit by body perception and body satisfaction: The subjects who were less satisfied with thicker upper arm, waist, thighs and wider hips were less satisfied with the upper arm area, waist area, hip area of jacket. The subjects who were more satisfied with longer arms were more satisfied with the sleeve length of jacket. The subjects who were less satisfied with wider shoulder width were less satisfied with the upper back width of jacket. It means the shoulder width affected more the upper back width of jacket than shoulder width of jacket. The subjects who were less satisfied with wider hips were less satisfied with the hip area of pants and skirt. The subjects who were less satisfied with thicker thighs were less satisfied with the thigh area and the hip area of pants and skirt. The subjects who were less satisfied with longer crotch length were less satisfied with the crotch length of pants. 3) Difference between actual body and perceived body by Röhrer Index: Röhrer Index 109 calculated by average of

Corresponding author: Sook-Hyun Park, E-mail: shpark@star.ks.ac.kr

본 논문은 2002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the ideal height(165.83cm) and weight(49.78kg) of the subjects ranged in thin body type(below 120). The subjects tended to perceived their bodies fatter than their actual bodies. Also, the subjects tended to perceived their lower bodies fatter than upper bodies.

Key words: apparel fit(의복맞음성), body perception(신체인지도), body satisfaction(신체만족도)
actual body type(실체체형), perceived body type(인지체형)

I. 서론

현대 사회는 시각적인 문화가 발달한 시대로서 여성들은 TV를 비롯한 영상 대중매체를 통해 시각적인 요소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고 있다. 시각적인 문화 중에서도 신체적 특징과 의복 등의 요소로 구성되어지는 외모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회 풍조를 가리키는 루키즘(lookism)이라는 용어의 탄생을 불러올 만큼 오늘날 외모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상적인 여성미의 기준은 과거에는 얼굴·가슴·허리·힙 등 신체의 일부분을 중심으로 결정되었지만, 현대에는 이러한 부분적인 요인과 체형이나 외모 등의 전체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결정되어진다. 그러나 개성이 중시되는 최근에는 과거 미의 기준으로 중요했던 부분적인 요인보다는 전체적인 이미지나 체형이 인체의 매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¹⁾으로 더 부각되고 있다.

최근 연령·신분·직업 등의 제한 없이 모든 여성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체형은 극도로 마르고 키가 큰 신체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인 이상형과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지도는 개인의 신체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즉, 여성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은 본인의 체형이 사회적인 이상형과 차이가 많을수록 커지고²⁾, 그 차이가 적을수록 작아진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사회적인 이상형과 자신의 체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상형과 자신의 실제체형과의 비교에서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하게 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여성들은 자신의 체형을 이상형에 근접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 의복이라는 수단을 사용하

고 있다.

의복은 신체의 결점을 보완하여 타인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고, 자신에 대한 심리적인 만족감과 자신감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유행이 공존함에도 불구하고 성인 여성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결혼·출산 등의 이유로 인한 신체적인 변화로 적합한 의복의 선택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 이유는 표준 체형을 기준으로 제작된 기성복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여성의 다양한 신체 변화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복의 맞춤 정도에 대한 불만족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학계에서는 소비자 심리나 구성학적 측면에서 신체인지도, 신체만족도 및 의복맞음성에 대한 연구가 행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대부분은 특정 신체부위 및 의복부위별 맞춤성에 대해 연구되었고 아이템(재킷, 팬츠, 스커트)별로 분류하여 신체인지도 및 만족도에 따른 의복맞음성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행해지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정장 착용 경험이 많아 체형에 적합한 디자인 선별력이나 착용감 등에 대해 잘 인식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신체 각 부위별 인지도와 만족도가 각 아이템(재킷, 팬츠, 스커트)별 의복맞음성(apparel fit)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함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의복 착용자에게 심리적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의복설계, 패턴제작, 디자인개발 시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고찰

1. 신체인지도 및 신체만족도

신체인지도(body perception)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관적이고 정신적인 인식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며, Kefgen, Touchie-Specht³⁾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란 스스로의 신체 분석에 의해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의식이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신체적 영상을 가진 사람은 소수라고 밝히고 있다.

Kwon, Parham⁴⁾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뚱뚱하다고 인지한 경우와 날씬하다고 인지한 경우의 신체인지도에 따라 의복을 통한 혜택과 기능 추구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는데, 비만하다고 인지한 경우에는 편안한 의복 기능과 개성을 추구한 반면 날씬하다고 인지한 경우에는 패션 기능을 추구한다고 하였다.

Horn⁵⁾에 의하면 신체만족도(body satisfaction)는 자신의 신체에 대해 갖는 만족·불만족의 정도를 의미하며, 정재은, 남윤자⁶⁾의 연구에 따르면 신체만족도는 실제 측정치보다는 각 부위의 크기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더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신체만족은 실제 자신의 체형보다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체형에 의해 더 영향을 받고 있다.

Mable, Balance, Galgan⁷⁾의 연구에 의하면 남성은 자신의 체중에 대한 왜곡 정도가 1% 미만이지만 여성은 자신의 체중보다 15% 정도 왜곡되게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Cash, Winstead, Janda⁸⁾에 의하면 미국의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신체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남성은 34%가 여성은 38%정도가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불만족하였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신체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체 부위를 5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모델과 일반 여대생을 비교한 송정아⁹⁾의 연구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모델이 일반 여대생들보다 자신의 신체에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모델의 경우 길이에 관련된 신체부분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패션 모델과 여대생의 신체인지도는 신장·체

중·비만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으며, 모델과 여대생들은 신체만족도의 기준이 다르지만 모두 마르고 키가 크며 다리가 긴 날씬한 체형을 이상형이라 여겨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 하는 경향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또한 신체인지도 및 만족도와 관련된 연구로 김용숙¹⁰⁾, 박우미¹¹⁾, 구양숙, 추태귀¹²⁾, 정찬진, 김옥진¹³⁾, 정재은¹⁴⁾, 정옥임¹⁵⁾, Douty, Brannon¹⁶⁾, Lennon¹⁷⁾, 박재경, 남윤자¹⁸⁾ 등의 연구들이 있다. 이들 연구의 결론을 종합해보면 여성들은 매우 다른 것을 이상형으로 삼고 있으며, 여성들의 인지체형과 실제체형 중 신체만족도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인지체형이라 밝히고 있다. 한편 김용숙¹⁹⁾, 박우미²⁰⁾, 구양숙, 추태귀²¹⁾, 박재경, 남윤자²²⁾의 연구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경우 30대 이상의 연령층 보다 가늘고 긴 체형을 갖고 있지만 신체만족도는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황진숙²³⁾의 신체만족도와 기성복의 만족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특정 부위에 관련된 기성복에 대한 만족이 그 부위에 대한 신체만족도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황진숙²⁴⁾의 신체만족도와 이상적인 신체상이 의복 추구혜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연구에서는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만족이 특정 의복의 추구혜택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의복만족도가 신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특정 부위에 대한 신체만족이 의복 추구혜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사회적 이상체형

Fallon, Rozin²⁵⁾에 따르면 역사를 통해 신체적 아름다움의 이상은 특정시대의 미적 기준과 일치하면서 변화해왔고, 개인은 그러한 사회적 기준에 부합되도록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는 대중매체가 신체적 매력의 기준을 정해왔으며, 사람들은 이러한 미의 기준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²⁶⁾. 또한 Saffire²⁷⁾는 외모가 인종·성·종교·이념을 초월한 새로운 편견과 차별 기제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현상을 루

키즘(lookism)이라고 표명하였다. 이와 같이 현재 우리 사회는 외모에 대한 차별주의가 극단적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개인의 신체에 대한 평가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바람직한 신체 형태는 문화적인 기준과 고정관념을 기준으로 하며 신체적인 이상형도 당대의 시대정신에 따라서 시대별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²⁸⁾. 과거 80년대에는 여성의 남성화 경향으로 어깨가 넓고 근육질의 크고 남성적인 이미지를 가진 여성이 이상형이었다. 그러나, 90년대를 거쳐 현재에는 영상 대중매체나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다양한 패션문화와 접하고 있어 패션쇼 등에서 보여지는 극도로 마르고 키가 크며 다리가 긴 체형을 가진 여성이 이상형이 되었다. 이는 현대의 이상적인 신체상이 점점 더 키가 크고 날씬한 형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밝힌 Douty, Brannon²⁹⁾, LaBat, Delong³⁰⁾, Lennon, Rudd³¹⁾ 및 Lennon³²⁾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다.

3. 의복맞음성(Apparel Fit)

Kefgen, Touchie-Specht³³⁾에 의하면 맞음성(fit)은 의복을 선택할 때 고려되는 중요한 요소로서 맞음성에 대한 평가는 의복의 디자인 및 안락함에 대한 개인적 욕구에 의하여 달라지는 주관적인 평가라고 하였다. Mclean³⁴⁾은 맞음성(fit)과 외관(appearance)은 신체만족도와 의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Ryan³⁵⁾과 Tate, Glisson³⁶⁾은 중년기의 신체 변화는 의복이 몸에 잘 맞지 않는 주된 원인이 된다고 하였으며, Ryan이 인용한 Blair의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의복의 맞음성에 문제가 되는 신체 부위가 허리, 위팔, 가슴, 어깨 등의 순서라고 하였다.

여성의 신체만족도와 의복맞음성에 대한 인지도를 연구한 LaBat, Delong³⁷⁾에 따르면 표준 사이즈로 제작된 의복은 신체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일반적으로 하반신(hips와 허벅지)에 대한 의복맞음성이 상반신(목과 팔)에 대한 맞음성보다 만족도가 낮다고 하였다.

Wenger³⁸⁾는 허리와 힙에 꼭 맞거나 약간 여유가 있는 맞음성에 대한 여성의 몸가짐과 선호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자신의 허리와 힙에 만족하는 여성들은 허리나 힙 부위에 대한 의복맞음성에도 만족한다고 하였다.

Frederick³⁹⁾은 '표준형, 비만형, 체중감량프로그램을 받은 비만형'의 세 그룹에 대한 신체만족도를 연구한 결과, 표준형이 가장 자신의 신체와 의복맞음성에 만족하였고, 비만형이 그 다음으로 만족하였으며, 체중감량프로그램을 받은 비만그룹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 및 의복맞음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다고 하였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 신체인지도와 신체만족도에 상관성이 있는가?

연구문제 2 : 신체인지도 및 만족도와 의복맞음성에 상관성이 있는가?

연구문제 3 : 신체충실지수에 따른 실제체형과 인지체형에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설문지법을 이용하였으며, 조사내용에 따른 설문항목 및 평가방법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신체인지도와 만족도의 상관성 검증을 위한 조사문항은 키를 포함한 상·하반신 부위별 19항목으로 구성하여 Likert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또한 신체인지도 및 만족도와 의복맞음성과의 상관성 검증을 위하여 각 아이템(재킷, 팬츠, 스커트)별 재킷은 10항목, 팬츠는 4항목, 스커트는 3항목으로 구성하여 Likert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신체충실지수에 따른 실제체형과 인지체형간의 차이 검증을 위한 조사문항으로 자신의 실제 키와

몸무게 및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키와 몸무게를 설문시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고, 인지체형에 대한 비만정도를 3항목(전신, 상반신, 하반신)으로 구성하여 Likert 3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국민표준체위조사보고서⁴⁾에 따르면 신체중실지수가 120이하를 허약, 121~150을 정상, 151이상을 비만으로 구분하고, 그 수치가 클수록 비만하다고 본다.

$$\text{RohrerIndex} = \frac{\text{몸무게(kg)}}{\{\text{키(cm)}\}^3} \times 10^4 \quad (n = 7)$$

<표 1> 조사항목 및 평가방법

조사내용	항목 수	조사항목 및 평가방법
신체치수	2항목	연구 대상자가 자신의 실제 키와 몸무게 및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키와 몸무게를 설문시 직접 기입하게 함
신체인지도	19항목	키, 상반신, 하반신으로 구분 Likert 5점 척도 (1=전혀 아니다, 3=보통이다, 5=아주 그렇다)
신체만족도	19항목	키, 상반신, 하반신으로 구분 Likert 5점 척도 (1=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3=보통이다, 5=아주 만족한다)
인지체형	3항목	전신, 상반신, 하반신으로 구분 Likert 3점 척도 (1=마른형, 2=표준형, 3=비만형)
아이템별 의복맞음성 항목	Likert 5점 척도 (1=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3=보통이다, 5=아주 만족한다)	
	재킷 10항목	어깨경사, 어깨너비, 윗등너비, 윗가슴너비, 가슴부위, 위팔, 소매길이, 허리둘레, 허리길이, 힙부위
	팬츠 4항목	힙부위, 밑위길이, 허리부위, 허벅지부위
	스커트 3항목	힙부위, 허리부위, 허벅지부위

<표 2>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변인		N(%)
연령	20대 후반	169 (54.3)
	30대	142 (45.7)
결혼여부	미혼	216 (69.5)
	기혼	95 (30.5)
전공분야	패션관련분야	63 (20.3)
	예·체능관련분야	25 (8.0)
	인문사회관련분야	102 (32.8)
	이공관련분야	58 (18.6)
최종학력	기타	63 (20.2)
	고등학교졸업	69 (22.2)
	대학교재학	22 (7.1)
	대학교졸업	177 (56.9)
	대학원재학	30 (9.6)
	대학원졸업	12 (3.9)
기타	1 (.3)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직장 착용경험이 많아 체형에 적합한 디자인 선별력이나 착용감 등에 대해 잘 인식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부산 시내 20대 후반에서 30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고,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응답자는 미혼 여성이 기혼 여성보다 2배정도 많았고, 전공을 살펴보면 인문사회관련분야의 여성들이 가장 많았으며, 패션관련분야, 이공관련분야와 기타(고졸이하)가 비

슷한 빈도로 응답하였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원 재학자 순서로 조사되었다.

자료의 수집은 설문지를 이용하여 2003년 3월~4월에 걸쳐 예비조사·본조사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총 350부 중 응답이 불완전하거나 성실하지 않은 39부를 제외한 311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SPSS/WIN 10.0 package program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기초통계로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다. 신체인지도와 신체만족도와와의 상관성, 신체인지도

및 만족도와 의복맞음성과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신체 충실지수에 따른 실제체형과 인지체형과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분석(기술통계)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신체인지도와 신체만족도의 상관성

1) 신체 각 부위별 인지도와 만족도의 평균

신체인지도와 신체만족도의 상관성 검증을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신체인지도나 만족도 각각의 평균을 살펴보면 신체 각 부위별 인지도에서는 목굍기, 어깨경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 대한 평균이 전반적으로 보통에 가까워, 신체 각 부위에 대해 보통정도로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반신의 위팔굍기, 아랫배 나온정도, 하반신의 힙너비, 허벅지 및 종아리굍기에서 평균이 보통이상으로 다소 굵다고 인지하였다. 따라서 상·하반신의 둘레 및 너비 항목은 다른 부위에 비해 크거나 굵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상반신의 목 굍기는 가늘다고 인지하였고, 어깨경사는 처져있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각 부위별 만족도에서는 목굍기, 목길이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 대한 평균이 보통이하로, 대부분의 신체 부위에 대해 다소 불만족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하반신에서는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낮은편이었고, 상반신의 아랫배 나온정도, 하반신의 허벅지 및 종아리굍기는 다른 부위에 비해 평균이 낮아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둘레 항목에 대해 전반적으로 불만족하였으며, 상반신보다는 하반신에서 더 불만족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2) 신체 각 부위별 인지도와 만족도의 상관성

전반적인 신체인지도와 만족도의 상관을 살펴보면 상반신의 어깨경사, 하반신의 힙 나온정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신체인지도와 만족도간에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상관을 나타낸 항

목 중 키 및 상반신의 목길이, 가슴크기, 팔길이, 하반신의 다리길이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부적상관을 보여, 자신의 신체 각 부위에 대해 크거나 굵다고 인지할수록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인지도와 만족도의 상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반신의 목굍기, 위팔 및 팔뚝굍기, 허리둘레, 아랫배 나온정도에서는 부적상관을 보여 목, 위팔, 팔뚝, 허리가 굵다고 인지할수록 불만족하였고, 아랫배가 나왔다고 인지할수록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키, 가슴크기는 정적상관을 나타내어 키나 가슴은 크다고 인지할수록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목길이, 어깨너비, 팔길이, 허리길이와 같은 항목들은 유의한 상관성이 있으나 낮은 상관을 보였으며, 목과 팔은 길다고 인지할수록 만족한 반면 어깨가 넓고 허리가 길다고 인지할수록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하반신의 허벅지, 종아리 및 발목굍기에서 부적상관을 보여 허벅지, 종아리, 발목이 굵을수록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리길이는 정적상관을 보여 다리는 길다고 인지할수록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하반신의 힙너비, 밑위길이는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만 낮은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힙이 넓고 밑위가 길다고 인지할수록 불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서 살펴보면 상반신과 하반신의 둘레 및 너비 항목에서 크거나 굵다고 인지할수록 불만족하였으며, 상반신보다는 하반신에서 전반적으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길이 항목은 둘레 및 너비 항목에 비해 낮은 상관을 보여, 둘레 및 너비 항목에 비해 신체에 대한 인식 및 만족 정도가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신체인지도 및 만족도와 의복맞음성과의 상관성

1) 신체인지도 및 만족도와 재킷 각 부위별 맞음성과의 상관성

재킷은 신체의 상반신과 하반신에 걸쳐 착용되는 의복으로 신체인지도 및 만족도와 재킷에 대한 맞음성과의 상관분석결과 <표 4>,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표 3> 신체인지도와 신체만족도의 상관성

신체인지도 항목- 신체만족도 항목		신체인지도		신체만족도		상관계수
		M	S.D	M	S.D	
키가 크다 - 키		2.85	.99	2.65	1.05	.62***
상반신	목이 굵다 - 목굵기	2.54	.94	3.12	.81	-.46***
	목이 길다 - 목길이	2.93	.86	3.02	.89	.35***
	어깨가 넓다 - 어깨너비	2.88	1.04	2.81	.85	-.34***
	어깨가 솟은편이다 - 어깨경사	2.32	1.00	2.87	.78	-.09
	가슴이 크다 - 가슴크기	2.60	1.08	2.53	.96	.42***
	팔이 길다 - 팔길이	2.97	.92	2.95	.79	.35***
	위팔이 굵다 - 위팔굵기	3.19	1.01	2.52	.99	-.56***
	팔뚝이 굵다 - 팔뚝굵기	2.99	1.08	2.61	1.00	-.58***
	허리가 굵다 - 허리둘레	2.98	1.09	2.57	1.04	-.57***
	허리가 길다 - 허리길이	2.76	.93	2.73	.87	-.30***
아랫배가 나왔다 - 아랫배 나온정도		3.14	1.02	2.40	1.06	-.56***
하반신	힙이 넓다 - 힙너비	3.09	1.04	2.59	.94	-.39***
	힙이 나왔다 - 힙 나온정도	2.94	.92	2.69	.82	-.08
	밑위가 길다 - 밑위길이	2.88	.76	2.76	.71	-.32***
	다리가 길다 - 다리길이	2.82	.91	2.56	1.03	.53***
	허벅지가 굵다 - 허벅지굵기	3.34	1.06	2.37	1.07	-.60***
	종아리가 굵다 - 종아리굵기	3.05	1.08	2.50	1.06	-.55***
	발목이 굵다 - 발목굵기	2.60	1.16	2.83	1.07	-.54***

***p < .001

<표 4> 신체인지도와 재킷 각 부위별 맞춤성과의 상관성

신체인지도	의복맞음성	재킷									
		어깨 경사	어깨 너비	윗등 너비	윗가슴 너비	가슴 부위	위팔	소매 길이	허리 둘레	허리 길이	힙부위
키가 크다								.22***			
상 반 신	목이 굵다	-.13*	-.16**	-.27***	-.13*		-.24***				
	목이 길다	.17**	.12*	.16**			.12*				
	어깨가 넓다			-.20**				.15**			
	어깨가 솟은편이다										
	가슴이 크다					.11*					
	팔이 길다						.14*	.20***			
	위팔이 굵다			-.17**			-.38***	-.23***			-.14*
	팔뚝이 굵다			-.17**			-.31***	-.15**			
허리가 굵다	-.15**		-.26***	-.21***	-.14*	-.27***	-.12*	-.36***	-.12*	-.24***	
허리가 길다				-.17**					-.28***	-.19**	
아랫배가 나왔다			-.18**	-.11*		-.28***		-.28***	-.21***	-.22***	
하 반 신	힙이 넓다					-.18**			-.19**	-.14*	-.29***
	힙이 나왔다		.15**	.17**						-.12*	-.15*
	밑위가 길다									-.26***	-.16**
	다리가 길다										
	허벅지가 굵다									-.18**	-.29***
	종아리가 굵다				-.14*				-.12*	-.16**	-.18**
	발목이 굵다										

*p<.05, **p<.01, ***p<.001

<표 5> 신체만족도와 재킷 각 부위별 맞춤성과의 상관성

의복맞음성 신체만족도		재킷									
		어깨 경사	어깨 너비	윗등 너비	윗가슴 너비	가슴 부위	위팔	소매 길이	허리 둘레	허리 길이	힙부위
키		.13 *	.12 *				.12 *	.13 *			
상 반 신	목굵기	.26 ***	.18 **	.25 ***	.15 *			.12 *	.16 **	.12 *	
	목길이	.24 ***	.19 **	.30 ***	.17 **			.13 *	.18 **		
	어깨너비	.32 ***	.48 ***	.36 ***	.25 ***	.13 *	.14 *			.13 *	
	어깨경사	.46 ***	.36 ***	.30 ***	.22 ***					.17 **	.14 *
	가슴크기				.25 ***	.34 ***		.13 *		.13 *	
	팔길이	.17 **	.16 **	.14 *	.15 **		.25 ***	.44 ***		.18 **	.13 *
	위팔굵기	.14 *	.16 **	.28 ***	.19 **	.13 *	.46 ***	.30 ***	.24 ***	.21 ***	.22 ***
	팔뚝굵기	.15 **		.18 **	.13 *		.39 ***	.24 ***	.19 **	.20 ***	.14 *
	허리둘레	.17 **	.21 ***	.35 ***	.35 ***	.24 ***	.33 ***	.26 ***	.48 ***	.25 ***	.25 ***
	허리길이	.18 **	.21 ***	.15 **	.30 ***	.15 **	.18 **	.14 *	.22 ***	.47 ***	.28 ***
아랫배 나온정도		.14 *	.21 ***	.27 ***	.24 ***	.26 ***	.18 **	.29 ***	.23 ***	.18 **	
하 반 신	힙너비				.21 ***	.18 **	.12 *	.17 **	.24 ***	.27 ***	.42 ***
	힙 나온정도				.14 *		.14 *	.11 *	.26 ***	.37 ***	
	밑위길이	.12 *			.14 *		.13 *	.17 **	.19 **	.37 ***	.27 ***
	다리길이				.13 *		.19 **	.20 ***	.19 **	.13 *	
	허벅지굵기						.12 *	.14 *	.17 **	.21 ***	.34 ***
	종아리굵기				.15 **				.19 **	.20 ***	.21 ***
발목굵기			.11 *	.18 **			.16 **	.15 **	.12 *	.19 **	

*p<.05, **p<.01, ***p<.001

<표 4>의 신체인지도와 재킷의 각 부위별 맞춤성과의 상관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유의한 상관은 있으나 낮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표 5>의 신체만족도와 재킷의 각 부위별 맞춤성과의 상관분석 결과 모든 부위에서 <표 4>에서 보다는 비교적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특히 상반신의 어깨너비, 어깨경사, 팔길이, 위팔굵기, 허리둘레, 허리길이, 하반신의 힙너비에서 다른 부위에 비해 높은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재킷의 각 부위별 맞춤성에는 대부분의 신체 각 부위에 대해 인지도 보다는 만족도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표 3>의 신체인지도와 만족도와의 상관분석 결과와 <표 4>, <표 5>를 함께 고려해 볼 때, 상반신이나 하반신의 둘레 항목에 대해 크거나 굵다고 인지할수록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하였고, 이러한 신체 각 부위에 따라 재킷의 각 부위별 맞춤성에도 불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체인지도 및 만족도와 재킷의 각 부위별 맞춤성과의 상관 결과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첫째, 어깨가 넓다고 인지할수록 불만족하였으며,

자신의 어깨가 넓다고 인지할수록 재킷의 어깨너비에 대한 맞춤성에는 의미 있는 상관이 없었으나, 재킷의 윗등너비에 대한 맞춤성에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신의 어깨너비에 만족할수록 재킷의 어깨너비와 윗등너비에 대한 맞춤성에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깨너비에 대한 신체 인지와 만족의 정도는 재킷의 어깨너비보다는 윗등너비와 더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위팔이나 팔뚝이 굵다고 인지할수록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하여 재킷의 위팔부위에 대한 맞춤성에도 불만족하였으며, 허리가 굵고 아랫배가 나왔다고 인지할수록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하여 재킷의 허리둘레에 대한 맞춤성에도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힙이 넓고 나왔다고 인지할수록, 허벅지가 굵고 인지할수록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하여 재킷의 힙부위에 대한 맞춤성에도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슴은 크다고 인지할수록 만족하여 재킷의 가슴부위에 대한 맞춤성에도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넷째, 길이 항목에 대한 만족의 정도에서는 키가 크고 팔이 길다고 인지할수록 자신의 신체에

만족하였으며 재킷의 소매길이에 대한 맞음성에도 만족하였다. 한편 허리가 길다고 인지할수록 불만족하여 재킷의 허리길이에 대한 맞음성에도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신체인지도 및 만족도와 팬츠·스커트 각 부위별 맞음성과의 상관성

팬츠와 스커트는 신체의 하반신에 착용되는 의복으로 신체인지도 및 만족도와 팬츠나 스커트의 맞음성과의 상관분석 결과 <표 6>,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석 결과에서도 밀위길이, 허벅지굵기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상관은 있으나 낮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표 6>에서 보다는 비교적 높은 상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팬츠 및 스커트의 각 부위별 맞음성에도 인지도보다는 만족도가 좀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표 3>의 신체인지도와 만족도와의 상관분석 결과와 <표 6>, <표 7>을 함께 고려해 볼 때, 하반신의 둘레 항목에 대해 크거나 굵다고 인지할수록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하여 팬츠 및 스커트의 각 부위별 맞음성에 대한 만족도에도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

<표 6> 신체인지도와 팬츠·스커트 각 부위별 맞음성과의 상관성

의복맞음성		팬츠				스커트		
		힙 부위	밀위 길이	허리 부위	허벅지 부위	힙 부위	허리 부위	허벅지 부위
신체인지도	힙이 넓다	-.24 ***	-.21 ***	-.21 ***	-.26 ***	-.25 ***	-.26 ***	-.27 ***
	힙이 나왔다	-.12 *		-.16 **	-.15 **		-.12 *	-.12 *
	밀위가 길다	-.21 ***	-.21 ***	-.15 **	-.14 *			-.13 *
	다리가 길다		.17 **		.18 **			
	허벅지가 굵다	-.25 ***	-.21 ***	-.19 **	-.56 ***	-.26 ***	-.19 **	-.43 ***
	종아리가 굵다	-.19 **	-.16 **	-.21 ***	-.36 ***	-.21 ***	-.19 **	-.31 ***
	발목이 굵다	-.17 **		-.15 **	-.25 ***	-.14 *		-.23 ***

*p<.05, **p<.01, ***p<.001

<표 7> 신체만족도와 팬츠·스커트 각 부위별 맞음성과의 상관성

의복맞음성		팬츠				스커트		
		힙 부위	밀위 길이	허리 부위	허벅지 부위	힙 부위	허리 부위	허벅지 부위
신체만족도	힙 너비	.38 ***	.30 ***	.33 ***	.32 ***	.37 ***	.33 ***	.30 ***
	힙 나온정도	.22 ***	.23 ***	.22 ***	.26 ***	.30 ***	.14 *	.15 *
	밀위길이	.29 ***	.41 ***	.19 **	.31 ***	.25 ***	.18 **	.26 ***
	다리길이	.11 *	.24 ***	.12 *	.28 ***	.19 **		.24 ***
	허벅지굵기	.32 ***	.31 ***	.28 ***	.55 ***	.33 ***	.25 ***	.43 ***
	종아리굵기	.16 **	.24 ***	.22 ***	.36 ***	.20 **	.22 ***	.37 ***
	발목굵기	.15 **	.18 **	.21 ***	.25 ***	.14 *	.18 **	.30 ***

*p<.05, **p<.01, ***p<.001

<표 6>의 신체인지도와 팬츠 및 스커트의 각 부위별 맞음성과의 상관분석 결과 허벅지굵기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유의한 상관은 있으나 낮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표 7>의 신체만족도와 팬츠 및 스커트의 각 부위별 맞음성과의 상관분

타났다. 따라서 신체인지도 및 만족도와 팬츠 및 스커트의 각 부위별 맞음성과의 상관분석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둘레 항목에 대한 결과로 하반신에서 가장 큰 상관을 나타낸 부위는 허벅지 부위였으며, 허벅지

가 굵다고 인지할수록 불만족하여 팬츠 및 스커트의 허벅지 부위에 대한 만족성에도 불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허벅지가 굵으면 대체로 종아리 및 발목이 함께 굵어 자신의 다리 굵기에 불만족하게 되고 팬츠 및 스커트의 다른 부위보다는 허벅지 부위에 대한 만족성에 보다 더 불만족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허벅지가 굵고 힘이 넓다고 인지할수록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하여 팬츠 및 스커트의 힙부위에 대한 만족성에도 불만족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길이 항목에 대한 결과로 다리가 길다고 인지할수록 만족하였으며, 다리가 길다고 인지할수록 팬츠의 허벅지 부위에 대한 만족성에만 만족하였고, 자신의 다리 길이에 만족할수록 팬츠 및 스커트의 허벅지 부위에 대한 만족성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밑위가 길다고 인지할수록 불만족하여 팬츠의 밑위 길이에 대한 만족성에도 불만족 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3. 신체충실지수에 따른 실제체형과 인지체형의 차이

연구대상의 실제 키와 몸무게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키와 몸무게를 설문시 직접 기입하게 하였으며, 그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8>과 같다.

<표 8> 실제 치수와 이상적인 치수에 대한 평균 및 표준 편차 (키, 몸무게)

		M	S.D
키 (cm)	실제 키	161.39	4.72
	이상적인 키	165.83	2.87
몸무게 (kg)	실제 몸무게	52.06	5.80
	이상적인 몸무게	49.78	3.13

<표 8>에서 살펴보면 실제 키와 여성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키의 평균차이는 4.44cm로 자신의 실제 키보다 더 큰 키를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실제 몸무게와 이상적인 몸무게의 평균차이는 2.28kg으로 실제 몸무게 보다 가벼운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키는 더 크고 몸무게는 더 가벼운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여성 대부분이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키와 몸무게의 평균값(165.83cm / 49.78kg)으로 신체충실지수를 구한 결과 신체충실지수의 객관적 분류에서 허약(120 이하)에 속하는 값인 109의 값이 산출되었다. 인지체형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9>와 같다.

<표 9> 인지체형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인지체형	M	S.D
상반신	1.99	.77
하반신	2.35	.72

<표 9>에서 상반신과 하반신에 대한 평균을 비교한 결과 상반신은 표준형이라고 인지하였지만, 하반신은 다소 비만형이라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10>에서는 신체충실지수에 따른 실제체형과 인지체형과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설문시 기입한 실제 키와 몸무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키와 몸무게로 신체충실지수(Röhler Index)를 산출하여 교차분석(기술통계)한 후 교차표로 나타내었다.

<표 10> 신체충실지수에 따른 실제체형과 인지체형간의 교차표

인지체형 \ 실제체형	마른형	표준형	비만형	계
	N (%)	N (%)	N (%)	N (%)
허약	52 (16.7)	66 (21.2)	7 (2.3)	125 (40.2)
정상	15 (4.8)	78 (25.1)	76 (24.4)	169 (54.3)
비만	0 (0.0)	5 (1.6)	12 (3.9)	17 (5.5)
계	67 (21.5)	149 (47.9)	95 (30.6)	311 (100.0)

<표 10>에서 살펴보면 실제체형이 '허약'에 포함되는 여성들은 마른형이라고 인지한 경우가 16.7%, 표준형이라고 인지한 경우가 21.2%로 나타났으며, 실제체형이 '정상'에 포함되는 여성들은 표준형이라고 인지한 경우가 25.1%, 비만형이라고 인지한 경우가 24.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체형이 '비만'에 포함되는 여성들은 3.9%가 비만형이라고 인지하였다. 즉, 신체충실지수에 따라 실제체형이 '허약'에 포함되는 여성들은 마른형이라고 인지하기도 하

였으나 표준형이라고 인지한 경우가 더 많았고, 실제 체형이 '정상'에 포함되는 여성들은 표준형이라고 인지한 경우와 비만형이라고 인지한 경우가 비슷한 빈도(%)로 나타났으며, 실제체형이 '비만'에 포함되는 여성들은 인지체형 역시 비만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제체형과 인지체형이 같은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자신의 실제체형보다 한 단계 더 비만한 체형으로 인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서 여성들은 마른 체형을 이상적으로 생각하여 전반적으로 자신의 실제체형보다 더 비만하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상반신보다는 하반신에서 더 비만하다고 인지한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신체 각 부위별 인지도 및 만족도가 각 아이템(재킷, 팬츠, 스커트)별 의복맞음성(Apparel Fit)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신체인지도와 만족도와의 상관성, 신체인지도 및 만족도와 의복맞음성과의 상관성, 신체 충실지수에 따른 실제체형과 인지체형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으며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상반신의 둘레 항목에 대해 크거나 굵다고 인지할수록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위팔, 팔뚝, 허리가 굵다고 인지할수록 불만족하였고, 아랫배가 나올수록 불만족하였다. 그러나 키는 크다고 인지할수록 만족하였는데, 이는 현대 여성들이 키가 크고 극도로 마른 체형을 이상형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반신의 둘레 항목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크거나 굵다고 인지할수록 불만족하였는데, 힙, 허벅지, 종아리, 발목이 굵다고 인지할수록 불만족하였고, 밑위는 길다고 인지할수록 불만족하였다. 그러나 다리는 길다고 인지할수록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재킷에 있어서는 위팔이나 허리, 허벅지가 굵고 힙이 넓다고 인지할수록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하였고 재킷의 위팔, 허리부위, 힙부위에 대한 맞춤성에 더 불만족하였다. 그러나 팔은 길다고 인지할수록 자

신의 팔길이에 만족하였으며 재킷의 소매길이에 더 만족하였다. 또한, 어깨가 넓다고 인지할수록 자신의 어깨너비에 불만족하였으며, 신체인지도에 있어서는 재킷의 어깨너비에 대한 맞춤성 여부에 의미 있는 상관성이 없었으나, 재킷의 윗등너비에 대한 맞춤성에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체만족도에 있어서는 어깨너비에 만족할수록 재킷의 어깨너비와 윗등너비에 대한 맞춤성에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깨너비에 대한 신체 인지와 만족의 정도는 재킷의 어깨너비 보다는 윗등너비에 대한 맞춤성과 더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팬츠 및 스커트에 있어서는 특히 허벅지가 굵고 힙이 넓다고 인지할수록 자신의 허벅지굵기 및 힙너비에 불만족하였고, 팬츠 및 스커트의 허벅지부위, 힙부위에 대한 맞춤성에도 불만족하였다. 즉, 힙이 넓고 허벅지가 굵을수록 요즘 여성복의 유행스타일인 여성의 인체 곡선이 강조되지 않는 슬림(Slim) 스타일에 잘 맞지 않게 되므로 팬츠 및 스커트를 착용하였을 때 힙이나 허벅지에 대한 맞춤성에 불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힙이나 허벅지가 가늘수록 이러한 유행스타일에 대한 맞춤성에도 만족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다리굵기에 있어 가장 높은 상관성을 나타낸 부위는 허벅지부위로 허벅지가 굵으면 대체적으로 종아리 및 발목이 함께 굵어 자신의 다리굵기에 불만족하게 되고 팬츠 및 스커트의 다른 부위보다는 허벅지부위에 대한 맞춤성에 보다 더 불만족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팬츠에 있어서는 밑위가 길다고 인지할수록 자신의 밑위길이에 불만족하였으며, 팬츠의 밑위길이에 대한 맞춤성에도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여성들은 마른 체형을 이상적으로 생각하여 전반적으로 전신에 대해 자신의 실제 체형보다 더 비만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 상반신에 대해서는 표준형이라고 인지한 반면 하반신은 비만하다고 인지한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결과 여성들은 상반신보다는 하반신이 더 굵다고 인지하였고, 상·하반신의 둘레 및 너비 항목에서 크거나 굵다고 인지할수록 불만족하였

며, 신체 각 부위별 인지도 및 만족도와 재킷, 팬츠 및 스커트에 대한 의복맞음성이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의복설계, 패턴제작 및 디자인개발 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면 정장 재킷, 팬츠 및 스커트를 착용할 때 성인 여성들의 신체 불만족부위에 대한 의복맞음성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1) 이옥희 (2000). 이상적인 인체미와 복식디자인의 착시 효과-사적 연구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 Davis, L. L. (1985). Perceived somatotype, body-cathexis, and attitudes toward clothing among college female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61, pp. 199-125.
- 3) Kefgen, M., & Touchie-Specht, P. (1986). *Individuality in clothing selection and personal appearance*(4th ed.). New York: Macmillan, pp. 167-180.
- 4) Kwan, Y. H., & Parham, E. S. (1994). Effects of state of fatness perception on weight conscious women's clothing practic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2(4), pp. 16-21.
- 5) Horn, M. J. (1975). *The second skin: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pp. 135-200.
- 6) 정재은, 남윤자 (1999). 20대 여성의 신체만족도 및 이상형에 관한 연구-1992년도와 1997년도의 비교-. *한국 의류학회지*, 23(1), pp. 159-169.
- 7) Mable, H. M., Balance, W., & Galgan, R. (1986). Body image distortion and dissatisfaction in university student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63, pp. 907-911.
- 8) Cash, T. F., Winstead, B. M., & Janda, L. H. (1986). The great american shape up. *Psychology Today*, 20(4), pp. 30-37.
- 9) 송정아 (2000). 패션 모델과 여대생들의 신체만족도 비교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2(4), pp. 325-331.
- 10) 김용숙 (1990). 전북지역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만족도와 유행지향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4), pp. 177-189.
- 11) 박우미 (1993). 우리나라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의식구조-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1), pp. 163-180.
- 12) 구양숙, 추태귀 (1996). 인구 통계적 변인에 따른 신체 만족도와 의복관여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5), pp. 29-40.
- 13) 정찬진, 김옥진 (1988). 의복의 유행스타일 수용과 선택기준 및 유행정보원의 활용과의 관계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2(3), pp. 351-362.
- 14) 정재은 (1993). 20대 여성의 실제 체형과 이상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정옥인 (1993). 개인적 인식에 의한 인지 체형과 실제 체형과의 비교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p. 153.
- 16) Douty, H. I., & Brannon, E. L. (1984). Figure attractiveness: male and female preference for female figur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3(2), pp. 122-137.
- 17) Lennon, S. J. (1988). Physical attractiveness, age and body typ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6(3), pp. 196-203.
- 18) 박재경, 남윤자 (1999). 신체부위별 크기인식과 착의 행동과의 상관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3(8), pp. 1149-1160.
- 19) 김용숙. 앞의 책, pp. 177-189.
- 20) 박우미. 앞의 책, pp. 163-180.
- 21) 구양숙, 추태귀. 앞의 책, pp. 29-40.
- 22) 박재경, 남윤자. 앞의 책, pp. 1149-1160.
- 23) 황진숙 (1997). 신체만족도와 기성복에 대한 만족의 상관관계 연구. *복식*, 34, pp. 183-193.
- 24) 황진숙 (1998). 신체만족도와 이상적인 신체상의 중요성이 의복추구행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 의류학회지*, 22(3), pp. 293-302.
- 25) Fallon, A. E., & Rozin, P. (1990).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body shap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4, pp. 102-105.
- 26) Thomas F. C., Thomas P. (2000). *바디이미지-발전·일탈·변화*-(임숙자, 이미현, 이승희, 신효정 역). 서울: 교문사, p. 106.
- 27) Safire, W. (2001. 8. 27). *Lookism: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August 1, 2003.
- 28) Danielson, D. R. (1989). The changing figure ideal in fashion illustration.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8(1), pp. 35-48.
- 29) Douty, H. I., & Brannon, E. L. *op. cit.*, pp. 122-137.
- 30) LaBat, K. L., DeLong, M. R. (1990). Body Cathexis and satisfaction with fit of appare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8(2), pp. 43-48.
- 31) Lennon, S. J., Rudd, N. A. (1994). Linkages between attitudes toward gender roles, body satisfaction, self-esteem, and appearance-management behaviors in women.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23(2), pp. 94-117.

- 32) Lennon, S. J. (1997). Physical attractiveness, age and body type: further evidence.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5(1), pp. 60-64.
- 33) Kefgen, M., & Touchie-Specht, P. (1976). *Individuality: in clothing selection and personal appearance*(2nd ed.). New York: Macmillan, pp. 129-139.
- 34) Mclean, F. P. (1978). *The process of aging related to body cathexis and to clothing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tah State University.
- 35) Ryan, M. S. (1966).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pp. 306-323.
- 36) Tate, M. T., & Glisson, O. (1965). *Family clothing*.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pp. 327-336.
- 37) LaBat, K. L., DeLong, M. R. *op. cit.*, pp. 43-48.
- 38) Wenger, J. (1969). *Clothing fit and body attitud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olorado State University.
- 39) Frederick, N. (1977).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cathexis and clothing market satisfaction of overweight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Washington State University.
- 4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997). 산업제품의 표준치 설정을 위한 국민표준체위조사보고서. 과천: 국립기술품질원.